

2023
고2 연매
미래엔

고2 언어와 매체 미래엔 | 2(1)(1) 국어의 음운 체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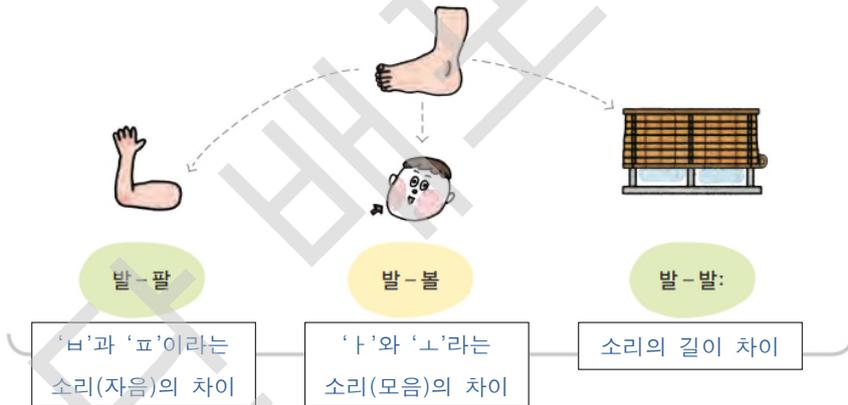
1. 국어의 음운 중에서 자음과 모음에 대해 묻는 문제
2. 제시된 설명을 만족하는 자음 또는 모음을 묻는 문제
3. 음운, 비분절 음운의 개념 및 예시와 관련된 문제

탐구 분석 - 국어의 음운 체계

1) 음운의 개념

발견하기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음성의 정의)를 음성이라고 한다.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k], [g] 등과 같은 소리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ㄱ'으로 인식함.)하는 말소리]([]: 음운의 정의, 음운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음운은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인 데 반해,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이다.(음성과 음운의 차이)

▶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

['달'과 '탈'은 'ㄷ'과 'ㅌ'이라는 소리의 차이로, '달'과 '돌'은 'ㄷ'과 'ㄹ'이라는 소리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이는 국어에서 'ㄷ', 'ㅌ'과 'ㄷ', 'ㄹ'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인 최소 대립쌍을 통해 음운을 확인할 수 있음. 최소 대립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음운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음운의 개념)라고 할 수 있다.

▶ 음운의 개념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는데,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분절 음

운의 의미와 예시)을 **분절 음운**(음운의 종류 ①)이라고 하고 **강약, 고저, 장단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비분절 음운의 의미와 예시)을 **비분절 음운**(음운의 종류 ②)이라고 한다.

▶ 음운의 종류

음운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므로 언어마다 다르다. 따라서 **분절 음운의 체계와 비분절 음운의 종류는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예: 우리말 자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하지 않아 모두 ‘ㄱ’으로 인식되는 소리가 영어 화자에게는 ‘g’또는 ‘k’로 인식됨.)

▶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 음운

② 자음

발견하기

다음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소리 나는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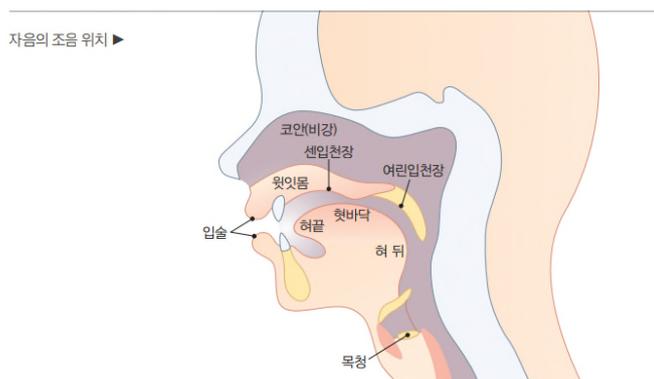
		
말	달	칼
‘ㅁ’: 입술에서	‘ㄷ’: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위치에서	‘ㅋ’: 혀의 뒷부분과 어린입천장 사이에서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자음의 개념)를 자음이라고 한다.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소리 나는 위치)를 **조음 위치**(국어의 자음을 나누는 기준 ①)라고 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소리 나는 방법)을 **조음 방법**(국어의 자음을 나누는 기준 ②. **특정 자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명을 만족하는 자음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자음 체계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 자음의 개념

자음은 **조음 위치**(국어의 자음을 나누는 기준 ①)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어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입술소리**(=양순음)는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술소리를 내는 위치)로 ‘ㅂ, ㅃ, ㅍ, ㅁ’(입술소리)이 있다. **잇몸소리**(=치조음, 치경음)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잇몸소리를 내는 위치)로 ‘ㄷ, ㄸ, ㅌ, ㅊ, ㅍ, ㄴ, ㄹ’(잇몸소리)이 있다.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는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센입천장소리를 내는 위치)로 ‘ㄱ, ㅋ, ㆁ’(센입천장소리)이 있다. **어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는 **혀의 뒷부분과 어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어린입천장소리를 내는 위치)로 ‘ㅇ, ㆁ, ㆁ’(어린입천장소리)이 있다. **목청소리**(=성문음, 후음)는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ㅎ’이 있다.

▶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종류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종류)으로 나눌 수 있다.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파열음을 내는 방법)로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파열음)이 있다. 마찰음은 **공간을 좁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마찰음을 내는 방법)로 'ㅅ, ㅆ, ㅎ'(마찰음)이 있다.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파찰음을 내는 방법, 파열음+마찰음)로 'ㅈ, ㅉ, ㅊ'(파찰음)이 있다. 비음은 **공기가 입과 코로 동시에 지나가게 하면서 입안의 통로는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비음을 내는 방법)로 'ㅁ, ㄴ, ㅇ'(비음)이 있다.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로 공기를 혀 양옆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내는 소리**(유음을 내는 방법)로 'ㄹ'(유음)이 있다.

▶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종류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격음)**의 대립이 있고,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대립이 있다.

▶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대립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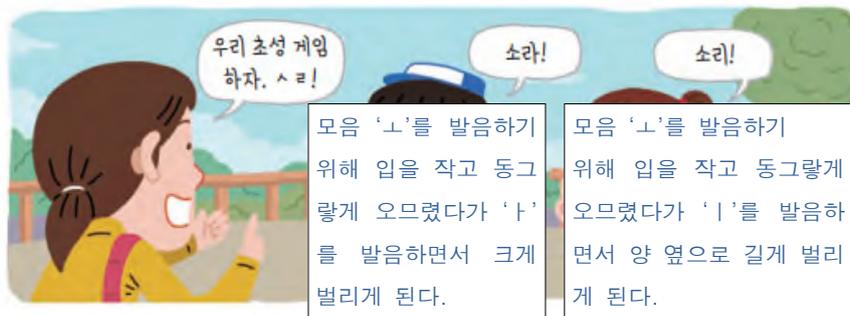
▲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자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하여 각 음운을 비교하거나, 조음 방법 및 위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③ 모음

발견하기

'소라'와 '소리'를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모음의 개념)를 모음이라고 한다.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모음의 종류 ①. 원칙적으로 10개이나 실질적으로는 7개임)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모음의 종류 ②)이 있다.

▶ 모음의 개념

모음은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모음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혀의 높낮이에 따른 모음의 분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모음에는 ‘ㅣ, ㅊ, ㅡ, ㅌ’가 있고, 중모음에는 ‘ㅔ, ㅕ, ㅖ, ㅗ’가 있으며, 저모음에는 ‘ㅘ, ㅙ’가 있다.]([]: 모음의 분류 ①)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모음의 분류)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전설 모음에는 ‘ㅣ, ㅔ, ㅘ(대부분의 화자가 잘 구분하지 못함.), ㅊ, ㅕ’, 후설 모음에는 ‘ㅡ, ㅌ, ㅗ, ㅙ’가 있다.]([]: 모음의 분류 ②) [또, 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입술 모양에 따른 모음의 분류)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원순 모음에는 ‘ㅊ, ㅕ(대부분의 화자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ㅊ”와 “ㅕ”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난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ㅌ, ㅗ’가 있고, 평순 모음에는 ‘ㅣ, ㅔ, ㅘ, ㅡ, ㅌ, ㅗ’가 있다.]([]: 모음의 분류 ③)

▶ 모음의 종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ㅊ	ㅡ	ㅌ
중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	ㅘ		ㅙ	

▲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

(모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하여 각 음운을 비교하거나, 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이중 모음의 구성. 반모음: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됨.) 이중 모음에는 ‘ㅑ, ㅓ, ㅕ, ㅖ, ㅗ, ㅙ, ㅘ, ㅙ’와 같은 ‘[]’계 이중 모음(이중 모음의 종류 ①)과 ‘ㅓ, ㅕ, ㅖ, ㅗ, ㅙ’와 같은 ‘[w]’계 이중 모음(이중 모음의 종류 ②)이 있다.

▶ 이중 모음의 종류

④ 비분절 음운

발견하기

소리의 길이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를 읽어 보자.



눈싸움



눈:싸움

음운이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 때, [**소리의 길이**(소리의 장단, 비분절 음운 ①)도 의미 구별에 기여]([]: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됨.)한다.

▶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길이

말[馬, 斗], 말 : [言] 굴[石花], 굴 : [窟] 성인(成人), 성 : 인(聖人)

국어에서 긴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나타난다.(소리의 길이가 갖는 음운으로서의 특징. **소리의 길이와 관련이 있는 표준발음법 제6항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발음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소리의 길이가 갖는 음운으로서의 특징

함박 + 눈 : →함박눈 인사 + 말 : →인사말

[그 밖의 비분절 음운]
같은 말이라도 평서문,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일 때 억양이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억양**(비분절 음운 ②)도 비분절 음운으로서 의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예) 지금 집에 가.(↘), 지금 집에 가?(↗), 지금 집에 가!(→)

활동 분석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불[pul], 풀[pʰul], 뿔[pʰul]’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외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대립하지 않기 때문) 한국 사람이 ‘불, 풀, 뿔’이라고 하면, 영어 화자들은 대개 ‘풀, 풀, 풀’이라고 따라 한다. 한국 사람은 ‘ㅃ, ㅍ, ㅍ’의 세 소리를 명확하게 서로 다른 소리로 구분하지만, 영어 화자들이 이 소리들을 구분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ㄷ, ㅌ, ㅌ’이나 ‘ㅈ, ㅊ, ㅊ’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자음은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어 자음의 대립 체계)

▶ 외국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말의 자음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p]:[b], [t]:[d], [f]:[v]와 같은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우리말은 ‘무성음-유성음’으로 대립하지 않기 때문) 한국 사람은 말을 할 때 [‘바보[pabo]’에서 첫 번째 ‘ㅃ’은 무성음 [p]로, 두 번째 ‘ㅃ’은 유성음 [b]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를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p], [b]을 모두 ‘ㅃ’이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하기 때문) 또 [한국 사람은 ‘다리[tari]’의 중간 소리 ‘ㄹ’과 ‘달[tal]’의 마지막 소리 ‘ㄹ’을 [r]과 [l]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를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r]과 [l]을 모두 ‘ㄹ’이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하기 때문. **자음 체계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한국인들은 ‘다리’의 ‘ㄹ’과 ‘달’의 ‘ㄹ’을 같은 소리로 인식하고 있군.’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한국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영어의 자음
- 국립국어원, 《우리말의 이모저모》

남: 어제 남산 어땀어요?
여: 날씨가 좋아서 즐거웠어요. 그런데 **팔이 아파요.**(‘발’이 아프다는 뜻으로 말함. 외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팔’과 ‘발’을 구분해 발음하기 어려울 수 있음.)
남: 팔이 아파요?
여: 네, 많이 걸어서 팔이 아파요.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짝들**(뜻과 생김새가 모두 비슷한 짝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남다/늡다’**(짝을 이루는 단어 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뜻이 꽤 비슷하지요, 그러면서 생김새도 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단어의 특징) 겨우 ‘ㅌ’를 ‘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남다’의 ‘ㅌ’가 ‘ㄴ’(아래 아)이니 그 ‘ㄴ’을 ‘ㄴ’로 바꾼 것인데 이렇게 **모음 하나만 살짝 바꾸어 서로 연관이 있는 새 단어를 탄생시킨 것**(짝을 이루는 단어를 만든 방법. 짝을 이루는 단어에서 사용된 자음과 모음의 발음 방법 등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말하자면 짝꿍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 우리말의 재미있는 짝의 예 ①

‘남다/늡다’(짝을 이루는 단어 ②)도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남으면 늡을 테니 서로 동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작다/적다’**(짝을 이루는 단어 ③)는 특히 대표적인 짝꿍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의미를 서로 혼동해 뒤바꾸어 쓰는 일이 많을 정도니까요.

▶ 우리말의 재미있는 짝의 예 ②

이런 짝은 **색깔을 나타내는 말**(짝을 이루는 단어 ④)에 엄청나게, 넘치도록 많지요. [‘빨강다/빨경다’, ‘파랑다/퍼렁다’, ‘노랑다/누렁다’, ‘하얗다/허영다’, ‘까맣다/꺼멩다’, ‘밝다/뵤다’, ‘맑다/뵤다’] ([: 색깔을 나타내는 말에서 짝을 이루는 단어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짝일 것입니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짝을 이루는 단어 ⑤)에 눈을 돌리면 이런 종류의 짝이 얼마나 많은지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말의 재미있는 짝의 예 ③

- 《우리말 산책》

(1) 이 글에 나타난 단어 짝들의 뜻(모음 하나만 다른 단어들로, 그 뜻 역시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음.)

남다	물건 따위가 오래되어 헐고 너절하다.
늡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
남다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
넙다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벗어나 지나다.
작다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적다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2)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짝(자음이나 모음의 차이를 통해 느낌 차이를 표현함.)

	단어	바뀐 음운
색채어	예) 빨강다-빨경다, 가맏다-까맏다, 노랑다-누렁다	ㅂ-ㅃ, ㄱ-ㄲ, ㄴ-ㄷ
의성어	예) 찰칵-철컱, 하하하 -허허허	ㅌ-ㄷ, ㅌ-ㄷ
의태어	예) 감감-감감-감감, 덜덜-둘둘-들들	ㄱ-ㅋ-ㄱ, ㄴ-ㄴ-ㄴ

[보기] 민주주의([의/이])의([의/에]) 의의([의의/의이])

제5항

[다만 4] 단어의 처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협비/협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 : 의의/강 : 이에]

(표준 발음법 규정을 바탕으로 ‘의’의 발음을 적절하게 발음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잘못 말한 거 알아?
 ‘추석 대목을 맞아 특산물 매장에 너나 할 것 없이 인파가 물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음으로 했어야지. 네가 말한 대로 단음으로 발음하면 특산물을 매장 하는데 전 국민이 물렸다는 얘기야.

매장(賣場)[매 : 장]을 매장(埋葬)[매 장]으로 잘못 발음했음을 알 수 있음. →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짐.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예시를 제시하고, 소리의 길이에 따른 의미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의 예

대 : 상(對象)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
대상(隊商)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의 집단.
문 : 다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문다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목업 배포 김시

2023
고2 연매
미래엔

고2 언어와 매체 미래엔 | 2(1)(1) 국어의 음운 체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분절** 음운(자음, 모음)과 **비분절** 음운(소리의 길이, 억양)이 있음.

2. 음성과 음운

음성	음운
구체적인 말소리	추상적인 말소리
물리적인 말소리	관념적인 말소리

3. 비분절 음운

개념	자음이나 모음처럼 절대적이고 분절적인 소릿값을 가지지는 않지만 말소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
종류	소리의 길이 •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함. •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나타나며,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 소리로 발음됨. 예 눈 : [눈]-눈[眼], 성 : 인(聖人)-성인(成人), 함박+눈 : →함박눈, 인사+말 : →인사말
	억양 • 음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화시켜 문장의 뜻을 구별함. 예 의문문 - 지금 학교 가?(↗), 평서문 - 지금 학교 가.(↘), 명령문 - 지금 학교 가!(→)

4. 자음

개념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말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자음의 분류 기준	조음 위치(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조음 방법(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 목청의 울림 여부에 따라: 울림소리(비음, 유음), 안울림소리(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5.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ㅍ], 된소리: [ㅍㅍ], 거센소리: [ㅍ]	예사소리: [ㅌ], 된소리: [ㅌㅌ], 거센소리: [ㅌ]	예사소리: [ㄷ], 된소리: [ㄷㄷ], 거센소리: [ㄷ]	예사소리: [ㄱ], 된소리: [ㄱㄱ], 거센소리: [ㄱ]
마찰음	예사소리: [ㅍ], 된소리: [ㅍㅍ], 거센소리: [ㅍ]	예사소리: [ㅌ], 된소리: [ㅌㅌ], 거센소리: [ㅌ]	예사소리: [ㄷ], 된소리: [ㄷㄷ], 거센소리: [ㄷ]	예사소리: [ㄱ], 된소리: [ㄱㄱ], 거센소리: [ㄱ]	예사소리: [ㅎ], 된소리: [ㅎㅎ], 거센소리: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TEST 2단계

1. 음운

- 말의 을 구별해 주는 의 가장 단위
- 음운(자음, 모음)과 음운(소리의 길이, 억양)이 있음.

2. 음성과 음운

음성	음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말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말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말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인 말소리

3. 비분절 음운

개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처럼 절대적이고 분절적인 소릿값을 가지지는 않지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이루는 것
종류	소리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리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 따라 단어의 <input type="checkbox"/> 을 구별함.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는 단어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서만 나타나며,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하에 오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로 발음됨. 예) 눈 : [눈]-눈[眼], 성 : 인[聖人]-성인[成人], 함박+눈 : →함박눈, 인사+말 : →인사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음의 상대적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변화시켜 문장의 <input type="checkbox"/> 을 구별함. 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 - 지금 학교 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 - 지금 학교 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 - 지금 학교 가!(→)

4. 자음

개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관에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자음의 분류 기준	조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조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내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에 따라: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는 방법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음 • 소리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 • 목청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부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리(<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음)

5.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파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음		<input type="checkbox"/>				
유음		<input type="checkbox"/>				

6. 모음

개념	□□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 기관에서 □□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과 □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와 '□'는 □□ □□으로 발음하는 것도 □□함.)	
단모음의 분류 기준	혀의 □□□	□모음, □모음, □모음
	혀의 □□□□	□□ 모음, □□ 모음
	□□ 모양	□□ 모음, □□ 모음

7.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	□	□	□
중모음	□	□	□	□
저모음	□		□	

8. 이중 모음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하는 도중에 □의 □치나 입□의 □양이 달라지는 모음 □모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분류 기준	□[□] + 단모음: □, □, □, □, □, □, □
	□/□□[□] + 단모음: □, □, □, □

9. 제재 정리 - 「우리말의 이모저모」

갈래	□□□
성격	□□적, □□적, □□적
주제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각 □□하지 못하는 □□
특징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을 구체적인 □□를 들어 설명함.

10. 영어와 구별되는 우리말 자음의 특징

바보[pabo]	□□음 [□]와 □□음 [□]를 □□의 소리 '□'으로 인식함.
다리[tari], 달[tal]	[□]과 [□]을 □□의 소리 '□'로 인식함.

11. 제재 정리 - 「우리말 산책」

갈래	□□□
성격	□□적, □□적
주제	□□□의 재미있는 □□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가 비슷한 우리말의 □□들을 구체적인 □□를 들어 □□적으로 제시함. □□□□를 활용하여 쉽고 친근한 어투로 설명함.

12. 이중 모음 '의'의 발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의 □□□의 '의': [□] 단어의 □□□ □□의 '의': [□](원칙)/[□](허용) □□ '의': [□](원칙)/[□](허용)
--

13.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

□□□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
□□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의 집단.
□□□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목민배포음지